“국방부, 군 공항 이전 적극 나서라”

이전통보 3년 지났지만 지지부진
광주·대구·수원 연합시민단체
궐기대회 갖고 후보지 발표 촉구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라.” “군공항 이전 적정 통보를 받고도 3년이 지났다. 국방부는 조속히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하라”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와 대구, 수원 시민들이 국방부에 조속한 군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광주·대구·수원 군 공항 이전 연합시민단체’(연합시민단체) 회원 700여명(주최 측 추산)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공항 이전 궐기대회’를 열고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연합시민단체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고, 국방부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광주와 대구, 수원에 ‘적정’ 통보를 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군 공항 이전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군 공항 이전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라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함에도 국방부는 소수 반대의견을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이전사업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군 공항 이전대상 지역 주민 설득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중재에 해결자로 나서라”며 “군 공항을 신속하게 이전하는데 현행 특별법상 장애 요인과 문제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군 공항을 놓고 광주와 대구, 수원 주민들은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은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지자체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 군공항의 경우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군을 이전 적합 대상지로 압축해놓고도, 해당 자치단체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설명회·공청회·행정협의회 등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를 미루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7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수원시 시민단체와 함께 궐기대회를 열고 군공항 이전부지를 조속히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제공〉

광주혁신추진위, 문화예술 특위 구성 “광주다운 문화예술 방안 마련”

전문가 등 13명 구성… 亞문화중심도시사업 등 3가지 혁신안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문화·예술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혁신위는 광주혁신위 위원, 시민사회 및 문화·예술단체 추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시 문화관광체육실장 등 13명으로 문화예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정경운 교수를 선출했다.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혁신추진위가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혁신을 위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 광주형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복지혁신특별위원회에 이은 세 번째 특별위원회이다.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혁신위가 문화·예술도시로서 광주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에 걸맞은 문화·예술정책을 광주시에 권고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 현황 등을 분석해 혁신안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문화·예술특별위원회에 맡겨진 역할은 크게 3가지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정책방향 제시 ▲광주시 문화·예술 재정운영 합리화 방안 ▲문화·예술분야 보조·위탁사업에 대한 시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이다.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혁신안 초안 마련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 매월 3~4차례 정례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경운 위원장(전남대 교수), 이기훈 지역문화호남재단 상임이사, 정민룡 북구청소년문화의 집 원장, 김학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박향 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추주희 혁신위 위원 등이 실무위원회에 참여했다.

실무위에서 마련된 문화·예술혁신안은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광주혁신위 전체회의에서의 재논의를 거쳐 권고안으로 확정, 광주시에 권고하게 된다.

혁신추진위 주정민 위원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보장되는 광주다운 문화예술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아이들 병원 입원 걱정 없이 맡기세요”

광주시, 만 12세 이하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소중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땐 언제든지 걱정 말고 맡기세요. 광주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광주시가 7일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운영에 들어갔다.

광산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던 ‘병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지난 8월 19일 광주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아이키움 행복한 광주 만들기’ 대책 중 하나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아동전문 간병교육을 받은 ‘병원아동보호사’가 아동간병 및 투약 돕기, 정서적 지원(놀이지원, 책읽어 주기) 등 종합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2007년~2019년생)이하 아동이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300원~6500원(본인부담금 기준)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용방법은 사업수행기관인 광주여성재단(1899-5912)으로 신청하면, 매칭시스템을 통해 아동보호사를 매칭한 후 시간 등을 정하면 아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아동보호사가 방문해 아이를 돌보게 된다.

광주시는 6대 광역시 중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은 광주가 이번 서비스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입원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이 가능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도시공사·환경공단, 노동이사 임명

노동자 경영 참여로 기관 운영 공공성·투명성 강화 기대

광주도시공사, 광주환경공단이 노동이사를 임명하고 노사 책임경영 실현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도시공사와 광주환경공단 노동자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된 광주도시공사 노동자이사는 1993년 입사해 현재 분양팀에 재직 중인 박철균(55·업무5급) 과장이다. 광주환경공단 노동자이사는 2004년 입사해 광주사업소 슬러지자원화팀에 재직 중인 조일권(50·3급) 차장이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관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조례가 지난 2017년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광주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과 실무협의회, 간담회 등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6월 광주시 최초로 광주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이사 2명을 임명했다.

노동자이사는 직원 선거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광주시 산하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100명 이하인 기관은 임의도입이다.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이 1명,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을 둔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은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출연기관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

이날 임명으로 제도 의무도입 대상인 3개 기관의 노동자이사 임명이 모두 마무리됐다.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의결권을 갖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부, 北주민 2명 첫추방…“해상살인사건 연루”

정부는 7일 북한 해상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측은 하루 뒤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17t급)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미, 연합공중훈련 이달 중순 실시…北 “인내 한계점”

한미 군 당국은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대체한 연합공중훈련을 이달 중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다”고 비난해 훈련 기간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한미가 규모가 조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이달 중순께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대규모로 시행됐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규모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한국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은 각각 훈련을 하다가 대대급 이하 연합전력들이 공중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대대급 이하 훈련은 연합으로 하지만,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C4I(지휘통제체계)를 이용해 훈련상황을 공유하는 등 상호운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과거 12월 시행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보다 규모가 축소된 연합공중훈련을 한 달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공군은 작년 비질런트 에이스가 유예됨에 따라 그해 12월 3일부터 7일까지 F-15K 전투기 등 수십 대의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남구 월산동 땅 127㎡ 2층 주택 118㎡ 1층 임대 7천 2층 주인거주 1억6천
• 월산동 무진중 건너편 나대지 234㎡ 원룸 등 적합 3억5천
• 서구 마륵동 도로접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장흥군 안양면 가산리 땅 891㎡ 주택·창고 137㎡ 전망 좋음 2억5천
• 곡성군 옥과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금매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적합 3300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48900㎡ 펜션 14개등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아파트부근 6m 도로접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음 5억2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20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 분	일정	
입학원서 접수(인터넷 작성)	2019. 11. 11.(월) ~ 11. 25.(월)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우편 및 방문접수)	2019. 11. 11.(월) ~ 11. 25.(월)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 형 일 시	2019. 12. 4.(수) 10:00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19. 12. 20.(금) 11: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융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